

무형문화유산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 일본의 사례
Defin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Stakeholders:
the Case of Japan

볼테르 가르시스 캉(Voltaire Garces Cang)

일본 리코대학(Rikkyo University), 박사과정



무형문화유산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 일본의 사례

● 볼테르 가르시스 캉(Voltaire Garces Cang)

일본 리코대학 (Ph.D. Candidate, Rikkyo University), 박사과정

서론: 구조 오도리(Gujo Odori), 축제

구조 오도리는 일본의 본 오도리(Bon, 통상적으로 한여름에 열리는 죽은 자들을 위한 축제) 중 하나이며, 기후 현(Gifu Prefecture) 구조 시(Gujo City) 구조 하치만(Gujo Hachiman)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서 마쓰리 춤(축제)이 매년 공연된다. 육지로 둘러싸인 기후 현은 구조 시와 행정구역인 구조 하치만보다 규모가 작고, 일본인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그나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유서 깊은 시라카와고(Shirakawa-go)와 고카야마촌(Gokayama)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기후 현의 많은 강에 서식하는 아유(ayu), 즉 은어도 잘 알려져 있다.

구조 오도리는 6월 중순에 시작되며, 구조 하치만 주민과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행사인 하쇼사이(Hasshosai)가 구 시청 광장 앞에서 전통적 후원자인 사당 관리자와 지방정부 대표에 의해 개최된다. 참석자는 매년 정치인과 사당 대표의 비율이 10대 1의 비율로 정치인 참석자가 월등히 많다. 정부 관리 및 행사 위원회 당국자를 제외하고는 지역 교육 위원회, 상공회의소, 관광협회와 같은 다양한 조직의 구성원들도 참석한다.

9월 초부터 시작해, 2달여 기간 중 31일 동안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다양한 리듬의 10가지 짧은 춤들로 구성된 춤을 춘다. 춤의 주제는 역사에서부터 농업과 자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행사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나, 접근 용이성이나 수용력 등의 실질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선택된 지역 내의 다양한 장소에서 치러진다. 구조 하치만의 인구는 17,000명 미만이지만 축제기간에는 그 수가 배로 증가하며, 테츠야 오도리(Tetsuya Odori, 밤샘 춤)가 열리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의 4일간은 일본의 본 오도리 휴일기간과 겹쳐 이곳에 모여드는 사람의 수가 이곳 인구의 4배를 넘는다(구조 시, 2006). 이때 마을 사람들 모두가 활동에 참여하여 축제에서 수익을 얻는다.

고대 문서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일본 축제와 마찬가지로 구조 오도리의 기원은 불분명하다. 구조 오도리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14년으로, 이 명칭은 새로운 시청의 개관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공연된 춤의 한 유형을 부르는 이름이었다. 1923년에는 고조 오도리 호존카이(Gujo Odori Hozonkai, 구조 오도리 춤 보존 협회)라는 조직이 이보다 1년 앞서 만들어졌고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이 협회는 춤의 레파토리를 공식화하여 팸플릿에 이 춤을 구조 오도리라는 이름으로 홍보했다(구조 오도리 헨산 잉카이, 1993).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홍보책자에는 구조 오도리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설명이 실려 있었다. 이 춤의 기원은 16세기 말인 1590년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당시 지역 씨족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신에게 감사하고 경배하며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하치만 주민에게 춤을 추도록 가르쳤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1991년에는 구조 오도리의 400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축하했다.

구조 오도리는 단순히 소도시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가 아니다. 1997년 이래 일본 정부는 구조 오도리를 246개 '중요 무형 민속문화재' 중 하나로 지정했다(문화청, 2006). 이 춤은 현재의 문화재 분류가 만들어지기 이전인 1973년 '국가 민속 예술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지정된 무형유산의 사례, 특히 기후 현의 구조 오도리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에서 무형문화유산 분야를 특징짓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일본의 무형문화유산: 유산의 '유형(what)' 식별하기

일본은 문화유산 보호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법제화한 국가 중 하나였다. 메이지 시대(1868~1911)에는 초기 제국주의 법령으로 1871년에 고대 유물을 보호하도록 명했다. 이에 따라 사당, 사원, 유적지, 기념비, 국

보의 보존을 규정한 여러 법률이 만들어졌다. 1949년 나라(Nara) 지역에 있는 호류지 절(Horyuji temple)에 화재가 발생해 고대 벽화가 파괴되자 1950년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안(Law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마련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 법안은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를 최초로 구분한 법이다.

1953년까지 일본 정부는, 국가의 보호 없이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주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특별히 가치가 높은 무형 문화재를 선정했다. 그리고 1954년에는 법안을 수정해 예술적이며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는 기타 무형문화재들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1955년부터는 '중요 무형문화재'와 그 보유자를 지정하게 되었다. 1975년에 다시 법안을 수정해 지방의 관습, 예절, 행위예술, 그리고 유형 및 무형유산의 보존에 필수적인 대화의 기술을 포함해 민속-문화 활동의 범주까지 포함시켰다(사이토 무라카미와, 2001; 지만스와 크렌가트너, 1999).

여러 차례에 걸친 법안 수정 및 범주의 수정으로 문화유산의 형태가 복잡해졌지만, 일본의 법률이 구체적으로 기술한 5개의 범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 유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3. 민속문화재
4. 기념비
5. 역사적 건축물

이에 따라 일본은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무형문화유산을 아래 3개의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2. 무형 민속문화재
3. 전통 보존 기술

무대 예술, 음악 및 응용 미술 기법 등은 모두 첫 번째 범주에 속하며, 민속의 행위 예술, 예절, 음식, 의복, 주거, 직업, 종교적 믿음, 연례행사 등과 관련된 관습 등은 모두 두 번째 범주에 해당된다.

일본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안(Law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에 따른 무형유산의 2가지 주요 형태는 '무형문화재'와 '민속 문화재(마쯔리가 이 범주에 속한다)'로, 정부는 두 가지 형태에 대해 서로

다른 보호 절차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도자기 기법과 음악 등의 무형문화재는 우선 보존의 대상이 되는 전통을 결정된 후 해당 문화재 보유자를 식별하게 된다. 이들 문화재는 공식적으로 선정 및 지정되어 전승자의 훈련, 공연 혹은 전시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재정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이 제공되고 그 외 다른 보조를 받게 된다. 지역 종교 의식이나 축제와 같은 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첫 번째 단계에서 그 전통의 수행자나 보유자를 확정하거나 결정하는데, 이들 보유자 대부분은 지역의 공공 및 민간 보존 집단에 속한다. 전통의 식별(혹은 선정 및 지정)은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 기금 마련 및 기타 지원 절차가 뒤따른다. 무형문화유산 각각의 분류기준에 따라 선정 과정은 사실 빠르게 진행되나, 무형유산 자체의 본질에 따라 접근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도예 기법과 음악(무형문화재)은 그 수행자들과는 별개로 존재하지만, 종교적 의식이나 축제(무형 민속문화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꾸준히 공연되거나 수행되어야 한다(미야타, 2003).

상대적으로 긴 일본의 역사와 왕성한 예술 전통은, 일본이 높은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문화 산물을 상당량 보유할 수 있게 해주었다. 200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무형유산만을 보더라도 일본 정부는 113가지의 '중요 무형문화재'와 246개 '중요 무형 민속문화재', 그리고 73명의 '선정 보존 기술' 보유 집단 혹은 보유자를 지정했다(문화청, 2006).

일본의 문화유산 관련법은 정교하게 엄선된 분류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유산의 식별 또한 정교하고 엄선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사실 그와는 거리가 멀다.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법안의 본래 취지는, 정부의 보호가 없다면 줄어들어 없어지게 될 중요한 일본의 유산을 보존하려는 것이었다(와타나베, 1999). 법안은 또한 일본에서 높은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극장, 음악, 공예 등의 무형문화재 자산을 향후 무형문화재로서 보호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쇠퇴와 멸망의 위험에 처해 있는 유산을 찾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본다면, 유산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지의 여부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예술적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문화유산은 그 본질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상관없이, 범주화의 문제가 뚜렷이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무형유산이 본질적으로 더 유동적이고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유형유산에서보다 더욱 극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무형유산은 그것이 보존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재창조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유산의 개념은 마치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유산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그것의 퇴보적 측면과, 새로운 환경에 맞춰 전통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 사이의 긴장관계가 있기에 유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일이 쉽지 않다. (브라운, 2003; p.183).

브라운은 미국의 토착 원주민에 대해 연구했다. 이들은 외부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저지하려 했으며 나아가 자신들의 소유권을 재정의 하고자 했다. 미국의 토착 원주민 집단은 연구자들이 그들로부터 빼앗아 어딘가에 보관해 놓은 음악 등의 문화 텍스트들을 반환하도록 요구했고(현재도 요구 중이며), 이는 복잡한 시스템을 둘러싸고 활동하는 수많은 정치적 행위자들로 하여금 투쟁을 일으키게 했다. 결과적으로 브라운(2003)은 자신이 대답할 수 없는 의문을 제기했고 이는 더 많은 의문을 낳았다.

한 집단의 문화적 산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다른 집단의 주장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특정 집단에서 한 개인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특정한 문화에 '속하는 지'의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p. 219).

다시 말해 이러한 결정은 누가 내리는가?

일본의 무형문화유산: '대상(who)' 식별하기

무형문화유산에서 '유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연구조사에 있어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앞서 질문에서 제기했듯이 '대상'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1983년 영국에서 열린 국가유산회의(National Heritage Conference)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유산이란 과거의 한 세대가 보존해 왔으며 현 세대에 전수해 준 것으로, 주요 집단이 미래 세대에 다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다"(해리슨, 2005, p. 5). 당연히 이러한 정의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보존해야 할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것이 왜 가치 있는 일인가? 의미 있는 집단이란 누구이며, 그러한 집단은 누가 선택하는가?

1972년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이 내린 정의에서 그에 대한 피상적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세계유산협약에서는 역사, 예술 혹은 과학의 관점에서 (또는) 역사적, 미적, 민속학적,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뛰어나며 보편적 가치가 있는 기념비나 건축물, 유적지를 (유형)유산으로 정의 내렸다(UNESCO, 1972). 또 다른 학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가치, 특히 미적 가치란 어떻게 정의되는가? 그에 대한 정의는 누가 내리는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분류기준은 이후 30년이 지난 2003년에 만들어졌으며 더 많은 아이템과 물품들이 유산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공동체나 집단,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도구, 사물, 공예품 및 이와 관련된 문화적 공간을 비롯하여, 관습, 표현물, 지식, 기술 등을 일컫는다. "세대를 거쳐 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에 의해 끊임없이 재창조되며, 이들 세대에게 정체성과 연속성의 관념을 부여한다(UNESCO, 2003).

이러한 정의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대상이 되는 것들의 실체가 파악됨과 동시에 그 이해관계자들 또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와 집단 그리고 개인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왜 그들이어야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가?

이러한 의문은 유네스코 무형유산 분야와 유네스코의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터(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ACCU)가 2006년 3월 도쿄에서 개최한 최근의 한 회의에서 다룬 주요 이슈이다(ACCU, 2006). 특히 이 회의에서는 2003년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을 검토하고, 협약의 전문과 본문에서 언급된 사람들, 즉 무형문화유산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써 앞서 공동체, 집단, 개인으로 이름 붙여진 이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고자 희망했다. 협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회의를 통해 다음이 협의되었다.

1. 공동체란 사람들로 연결된 네트워크로, 그에 속한 사람들의 정체성과 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무형문화유산의 이행, 전수, 참여에 뿌리를 둔 공유된 역사적 관계에서 기인한다.



그림 1
기후 현 구조 시 구조 하치만에 있는 이전 시청사, 현재는 관광센터임.

2. 집단이란 공동체 내 혹은 그 전반에 걸쳐있는 사람들로 기술, 경험, 특수 지식과 같은 특성들을 공유하며, 이들은 무형문화유산을 현재 혹은 미래에 이행, 재창조, 전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예를 들면 문화의 후견인, 수행자 혹은 전승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3. 개인이란 뛰어난 기술, 지식, 경험 혹은 여타 특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 안팎의 사람들로, 이들은 무형문화유산을 현재 혹은 미래에 이행, 재창조, 전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예를 들면 문화의 후견인, 수행자 혹은 전승자들이 이에 해당한다(2006).

이러한 사람들과는 별도로, 회의에서는 또한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개의 다른 집단을 식별해냈다. 비록 무형문화유산과 관계하는 것이 반드시 국가 전체가 아닌 특정 공동체라는 것이 지적되었으나 여기에는 '사회적 한 국가의 국민 전체라는 집단이 있다(p.28). 또 다른 집단은 '다국적' 혹은 '흩어진 커뮤니티/집단'으로 이들은 하나의 지역이나 국가로 한정되지 않는 유산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무형유산의 영역에서 행위자의 역할과 위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환영받을 만 하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협약은 국제 조약이라는 특성상 여전히 '국가'의 문화라는 개념을 외형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국제 조약은 문화유산과의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이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 문화연구 학자인 바바(Bhabha)가 광범위하게 논의했듯이(Huddart, 2006), 국제 협약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적' 의미가 없는 문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즉 언급된 공동체, 집단, 개인의 참여가 없이는 무형문화유산을 정의하거나 식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이 유산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전수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적어도 이러한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p.27). 공동체, 집단, 개인은 광범위하며 중복된 범주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실제 그러한 구분을 적용할 때의 상황이나 장소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서로 다른 무형문화유산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범주에 속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갖게 된다.

이미 언급했듯이 무형(민속)문화유산 분야에서 일본 정부는 전통의 식별 및 지정에 있어 지역 보존단체의 역할에 의존하고 있다. 보존단체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공동체의 요구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 혹은 때때로 '개인'으로 간주된다(와타나베, 1999). 지방정부가 국가 문화 정책에 상응하는 해당 지역의 정책을 채택(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개발)하고, 지역 단체는 전통 및 민속 문화(민속춤, 음악, 공예품, 축제 등)를 발전시킴으로써 특정 문화를 되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p. 67).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구조 오도리: '유형(what)'과 '대상(who)'의 문제

구조 하치만에서 구조 오도리가 갖는 중요성은 구조 하치만 하쿠란칸(Gujo Hachiman Hakurankan)이라는 전쟁 이전에 만들어 진 유립식 건축물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 건물은 본래 세무서로 지어졌으며, 1991년

이 지역의 중심 박물관으로 개조되었다. 하쿠란칸의 전시설은 두 층에 걸쳐 있으며 '물'(미즈), '역사'(레키시), '기술'(와자), '춤'(오도리)의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물', '역사', '기술'은 2층에 펼쳐져 있으며 '춤'은 1층 전체를 독점하고 있다. 여기서 '춤'은 당연히 구조 오도리를 말한다. 구조 오도리는 오랫동안 이 지역과 동일시 되어왔다. 사실상 그것은 이 지역의 정체성이며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두달여에 걸친 축제기간 동안 평균 300,000명의 방문객이 방문했으며 이는 지난 10여 년 간 꾸준히 이어져왔다.

오늘날 구조 오도리는 10개의 춤으로 구성된 레퍼토리를 갖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밤에 춤을 추며 공연한다. 사람들은 음악인들이 노래하며 북과 피리, 사미센(일본의 3줄로 된 기타)을 연주하는 야카타(나무로 만든 무대) 주변을 둘러싸고 춤을 춘다. 4일을 연이어 밤마다 추는 테츠야 오도리를 포함해, 신성하다고 판단되는 31일 때로는 32일 동안 밤마다 춤 공연이 벌어진다. 매일 밤 8시경에 시작되는 춤은 11시까지 이어지지만, 테츠야 오도리는 다음날 새벽 4, 5시까지 이어진다. 최근 들어 개막 행사 및 춤은 전쟁 전의 시청(현재 기념 전시관 및 기념품 판매점이 들어서 있음) 앞 광장에서 열리며, 축제의 나머지 기간 동안 지역 내 다양한 지역을 옮겨가며 춤을 춘다. 부채와 같은 액세서리나 특수 의상은 필요하지 않으나, '게다(나무로 만든 나막신)'가 댄스화로 선호된다. 이는 '게다'가 춤의 리듬과 걸음에 맞춰 도로를 밟을 때 특수한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손동작은 매우 간단하다. 일부 춤은 약간의 복잡한 스텝을 필요로 하지만 춤에 소질이 없는 일반인조차 그리 어렵지 않게 출 수 있을 정도다.

구조 오도리는 활기찬 행사다. 춤은 빠르고 리드미컬하다.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야카타 주변을 둘러싸며, 군중과 함께 쉽게 움직일 수 있지만 빠져 나오기는 쉽지 않다. 걸음마하는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춤꾼의 거의 대다수는 외부인들이다.

1971년부터 구조 오도리 운에이 잉카이(Un-ei Iinkai, 구조 오도리 집행 위원회)가 축제기간 동안 구조 오도리의 관리를 담당해왔다. 위원회는 구조 오도리 호존카이, 지방정부(주로 하치만의 상업 및 관광 담당 공무원), 하치만 주민협회(지치카이), 사당 및 사원 당국자, 관광업 단체, 지역 상공회의소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역할은 주민협회, 상업 및 관광 부서, 구조 오도리 호존카이가 담당한다(아다치, 2000).

주민협회는 구조 오도리가 열릴 날짜와 장소를 결정하는 임무를 맡는다. 날짜는 해당 지역이나 그 지역과 관련된 지역 내의 사당과 사원(그리고 지조 혹은 부처)이 신성하다고 지정한 날로 한다. 날짜와 장소를 정한 후 주민 협회는 집행위원회를 통해 구조 오도리 호존카이에서 정한 스케줄에 따라 공연을 하도록 공식 요청한다.

상업 및 관광국은 구조 오도리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 즉 정해진 행사일과 장소에 지역 경찰 및 소방당국의 배치, 언론을 통한 광고 및 안내, 그리고 행사 기간 및 전후의 구조 오도리호존카이에 대한 물류 수송 지원 등을 위한 협상업무를 담당한다.

집행위원회로부터 공식적 요청을 받으면, 구조 오도리 호존카이는 스케줄에 맞춰 업무를 수행한다. 축제 당일에 회원들은, 유카타(면으로 만든 기모노)를 유니폼으로 입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뒤를 따라 춤을 추며 공연한다. 이들은 매일 저녁 행사 시작부분에 30분에서 1시간가량 춤을 추다가, 군중 속을 돌아다니며 그들이 춤의 전문가로 간주하는 15명을 선정한다. 15명은 나이나 성별도 상관없으며 지역 주민, 방문객, 관광객 모두 가능하다. 선정된 춤꾼들은 이후 구조 오도리 전문가 자격을 증명하는 수

료를 받는다. 수료증은 무료이며, 수료증을 받는 사람들이 원할 경우 그것을 낼 수 있는 긴 직사각형의 나무틀을 2천 엔에 판매한다.

구조 오도리 호존카이는 현재 70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축제 외의 기간에 회원들은 기후 현과 일본 전역에서 이 전통의 공식적인 대표자로 구조 오도리를 공연한다. 예를 들어 매년 9월이면 구조 오도리 행사가 도쿄의 아오야마(Aoyama) 지역에서 열린다. 이는 아오야마라는 이름이 300여 년 전 구조(Gujo) 지역을 지배했던 가문 중 하나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구조 오도리 호존카이의 회원들은 때때로 요청이 들어오면 학교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강연을 하거나 공연을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조 오도리 호존카이는 구조 오도리 유산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집단이다. 이 협회는 일본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구조 오도리가 계속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구조 오도리라는 개념이 존재할 때부터 있어왔으며 구조 오도리를 오늘날 최고의 중요 무형 민속문화재로 발전시키는 데 몰심양면으로 노력해왔다. 이 단체는 구조 오도리의 역사를 훨씬 이전(4백여 년 전)까지 확대하고 춤이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임무를 맡아왔다.

구조 오도리를 (세속화에 반대해) 종교적 색채를 띤 본 오도리로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도 구조 오도리 호존카이이다. 1923년 당시의 애국주의적 경향에 부응해 구조 오도리 호존카이는 노래의 레파토리에서 모든 통속적이고 세속적인 특성들을 제외하고 건전한 여흥만을 남겨두었다(아다치, 2004; p. 87). 또 다른 중요하고 큰 변화도 있었다. 구조 오도리 호존카이 회원들이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는 장소이자, 참석자들이 주변을 맴돌며 춤을 볼 수 있는 야카타를 도입한 것이었다. 목재로 된 무대가 처음 사용된 1953년 이전에는 행사 참석자면 누구나, 특히 재능 있고 유명한 사람이라면 축제에 참여해 춤추는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50여 년 동안은 구조 오도리 호존카이만이 음악 공연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승 방식에 따라 구조 오도리의 전통은 이에모토(일본 예술 전통에 있어 대부분 나타나는 명목상의 가족 대표)가 이어 받는 다른 일본의 전통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 아다치(2004)는 구조 오도리를 구조 오도리 호존카이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이에모토 시스템이 되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는 현재의 구조 오도리 호존카이 회원들이

미래의 춤과 음악을 가르칠 사람들을 훈련하는 방식 때문에 가능했다. 즉 이들은 이시 쇼우덴(issshi souden, 모든 유산을 한 명의 상속자에게 물려줌) 방식을 따른다. 이 방식대로 지정된 단 한 사람의 계승자만이 단 한 명의 대가로부터 완전하고 배타적인 훈련을 받는다.

일본의 다례(茶禮)는 일본 전통에서 이에모토(iemoto)를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가장 '일본'다운 것으로 잘 알려진 상징(레이쇼우너, 1988/1999; 새들러, 1933/2002)인 다례는 한 잔의 차를 대접한다는 한 가지의 단순한 목적과 관련된 복잡한 의례이다. 16세기 중반 이후 다례의 전설적 창시자인 센 리큐가 처음 만든 이 전통은, 대략 그의 가족과 후손들(때로는 친척들) 사이에서 행해졌다. '차의 대가'라는 직함은 첫째 아들이 전수받게 되는데, 그는 현직 대가의 사망 시(때로는 퇴임 시)에 그 직위를 차지하기 위해 일찍이 훈련을 받는다.

가장 중요한 모든 지식과 의례는 한 사람의 상속인에게만 배타적으로 전수된다. 다례의 전통에서,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최대 규모의 차 학교인 유라센케(Urasenke)의 현재 교장은 리큐(Rikyū)의 16대 손이다. 그가 맡은 중요한 역할은 차와 차의 대접과 관련된 의례뿐만이 아니라 기 타 지식들 즉 공식적인 일본의 언어와 태도, 선 교육, 일본 요리, 서예, 전통 찻집 건축, 도자기 및 존경 받는 전통과 문화유산의 여러 관련들을 보 존하고 전승하는 것이다.

다른 일본의 문화적 예식과 마찬가지로 다례 의식은 재탄생, 재창조, 재발명되었다.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재탄생, 재창조, 재발명은 단 한 명의 사람, 즉 이에모토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모토는 다례란 무엇인지를 정의할 뿐 아니라 다례를 지키기 위한 모든 규범을 정하는 유일한 권한을 갖는다(플루초우, 1999 & 2003). 국자로 대나무 뚜껑 받침대에 놓여 있는 물을 따르는 소리나 쟁반 위 과자를 놓는 위치 등 아주 작은 규칙과 세부사항들도 이에모토의 재가 없이는 바꿀 수 없다. 조직에서 가장 연장자이며 면허가 있는 교사라도 이러한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외부인이나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모토 체계는 일본의 무형문화유산에 독특한 특성일지 모르나, 일본의 다른 전통, 예를 들어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 3대 구전 및 무형유산 대표작인 노가쿠 극장, 분라쿠 인형극장, 가부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누군가는 이에모토를 유네스코 협약에서 정의하듯이 단순한 '개인'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체계에 대해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된



그림 2 야카타(나무로 만든 이동식 무대)를 둘러싸고 방문객들과 주민이 구조 오다리를 추고 있다.

그림 3
 구조 오도리의 핵심은 아카타(목재로 된 이동식 무대)로, 축제 참여자들은 아카타 주변을 따라 춤을 추고 정해진 연주자들과 가수들이 음악을 연주한다. 맨 앞의 종으로 된 등(燈)에 "구조 오도리"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그림 4
 아카타(목재로 된 이동식 무대)의 확대사진. 깃발에 "가와사키"라고 써 있다. 이는 구조 오도리 레파토리인 10개의 춤곡 중 하나이다.



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에모토는 일본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고 유네스코의 영향도 받지 않는 그 자신만의 리그에 속해있다고 말이다. 그는 무형유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유산의 일부가 아닌 것이다.

구조 오도리 호존카이이 사례에서 보듯이, 이에모토의 존재 그리고 70개의 강력한 보존주의자들의 존재는 협약의 3개 주요 카테고리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이들은 구조 오도리 전통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오늘날에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집단, 개인의 이해관계자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소수의 손에 엄청난 권력과 명예가 쥐어져 있기 때문이다.

결론

구조 오도리는 무형문화유산의 한 사례일 뿐이나 그 모호한 기원과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본의 무형문화유산에 있어 그리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무형 민속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포함한 일본 전역의 수많은 축제들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비록 마쓰리 의식의 일부는 수백 년 전부터 행해져 왔지만, 그 의식들은 현대적 목적에 맞게 변형되거나 개조되었다. 일례로 중심 도시의 발전에 따라 행진방향을 바꾸거나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날짜와 장소도 수정했다.

예를 들어 교토(Kyoto)에서 열리는 유명한 다이몬지 마쓰리(Daimonji matsuri) 불빛 행사는 1950년 이후에 가셔야 '재발견'되어 1960년대 초 원래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현대의 자본주의적 형태를 띠게 되었다'(카론, 2003). 베스토(1989)는 도쿄 내 지역 축제에 대한 연구에서, 일본의 전통은 그것이 불변의 것으로 남아있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유는 혁신과 융통성이 높기 인정받기 때문이며, 공동체의 영속성은 전통이 가져다주는 연대성을 강화시켜 줌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전통 보존(혹은 창조)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p. 253).

하지만 축제를 포함한 전통들이 차단에 이용될 수도 있다. 로버트슨(1991)은 코다이리(Kodaira)의 시민 마쓰리(시민 축제)가 새로운 주민과 그 촌락 설립자의 후손임을 주장하는 '원주민'들간의 긴장을 어떻게 강화했는지를 지적했다. 새로운 주민들은 축제의 가장 중요하고 극적인 부분의 공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했는데 이는 해당 공동체의 거주 기간에 따른 위계질서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냈다. 16세기 씨족 지도자가 추수감사 의식의 한 형태로 잔치에서 춤을 추도록 명령한 데에서 기인했다고 언급한 구조 오도리와 마찬가지로, 코다이리의 축제도 지역 권력의

명령에 따른 행사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현재의 코다이리 축제는 지방 정부가 주관하며 축제 위원회는 장기간 거주한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제를 통제하는 권력이 공동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교묘하게 양도했다. 이것이 바로 구조 오도리 호존카이이 영향력 하에 있는 구조 오도리의 어두운 면이다.

여전히 마쓰리나 축제는 '아주 중요한' 일본의 의례로서 지방정부와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장려하고 있다. 비록 때로는 새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축제는 전통적인 신도 예식으로서 역사, 지방 정치 및 사회/종교 관련 조직들과 밀착관계를 맺는다. 신도의 예식은 19세기 후반에 활성화되어 재창조 즉 간단히 말하면 무에서 그 형태를 창조해냈다(캐론, 2003, p.169). 전통이 '재발명'된다는 사실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주제(흡슨과 레인저, 1983)이며, 사회과학자들은 전통이 현대 사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며 만들어내는 데 계속적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자주 지적해 왔다. 축제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야나기사코(Yanagisako, 1985)는 전통은 그 의미를 과거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언어에서 찾아야 하는 문화적 구성물이라고 언급했다(p. 18).

전통적인 것과 비전통적인 것 사이에 잘못된 정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통 즉 그 조상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유산을 선정하고 식별하는 체계를 만들어냈다. 일본의 핵심적 정체성과 강력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수많은 예술 전통들, 즉 다양한 무예기술, 꽃꽂이(이케바나/카도), 앞서 언급한 다례(차도) 등이 그 사례다. 이들 중 많은 전통들이 오래된 전통이며 일본 정부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에 매우 적합한 것들이다. 하지만 사실상 많은 전통들은 쇠퇴와 멸망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수많은 열광적 지지자들과 후원자들이 이들 전통이 영원히 유지되도록 보장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것들도 있다. 지정되지 못한 이유는 이것들의 '유형', 즉 어떠한 전통이나 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이유는 이들 전통 각각이 수 세대 동안 만들어지고 전해져 온 엄격한 의례와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각각의 전통이 무형유산으로서 식별되고 인정받기 때문이다. 문화재 지정에서 누락된 것은 그 보다는 전통의 이해관계자들, 즉 '대상'의 문제와 더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유산을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확고하고 견고해서 일본의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법률 및 규칙도 상관이 없게 되었다. 이미 일본의 법에 근거해 공식적으로 지정된 무형문화유산들의 경우, 특히 무형(민속)문화유산의 경우에 있어 일본 정부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구조 오도리 호존카이와 같은 보존단체

에 상당한 명예와 권력을 부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에서는 그러한 보존단체를 없애 버린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통의 보존(그리고 재창조)을 생각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Adachi, S. 2000. Dento bunka no setsumei: Gujoodori no hozon wo megutte. pp. 132-154 in S. Katagiri (Ed.), Rekishiteki kankyo no shakaigaku. (Tokyo: Shinyosha)
- Adachi, S. 2004. Chiikizukuri ni hataraku bonodori no riariti: Gifuken gujoshi hachimancho no gujo odori no jirei kara. pp. 83-95 in Kansai Sociological Review, 3.
- Agency for Cultural Affairs. 2006. Kuni shitei bunkazai. Retrieved August 20, 2006 from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website at <http://www.bunka.go.jp/bsys/categorylist.asp>
- Asia 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ACCU). 2006. Expert Meeting on Community Involvement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Retrieved October 10, 2006, from the ACCU website at <http://www.accu.or.jp/ich/pdf/b2006Expert.pdf>
- Bestor, T. 1989. Neighborhood Tokyo. (Tokyo, Kodansha International)
- Brown, M. F. 2003. Who owns native cultu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on, B. 2003. Festivals and new social movements. Community, Democracy, and Performance. Retrieved October 10, 2006, from http://junana.com/CDP/corpus/pdfs/Chapter_5.pdf
- Gujo odori hensan iinkai (Eds.) 1993. Rekishi de miru gujo odori. (Gifu: Hachiman cho)
- Gujo shi. 2006. Gujo City. Retrieved October 10, 2006 from the Gujo City website at <http://www.city.gujo.gifu.jp>
- Harrison, D. & Hitchcock, M. (Eds.) 2005. The politics of world heritage: Negotiating tourism and conservation. (London: Multilingual Matters Limited)
- Hobsbawm, E. & Ranger, T.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ddart, D. 2006. Homi K. Bhabha. (London & New York: Routledge)
- Murakami, J. & Saito, H. 2001. Protection policies f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case of performing arts) in Japan. Paper presented at the 6th International Training Workshop for the 'Living Human Treasures System', Tokyo.
- Miyata, S. 2003. Nihon ni okeru 'mukey no bunkazai' hogo no genjo to hokosei [Present and future trends in the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Japan] pp. 21-45 in Kokusai bunkazai hozonshufuku kenkyukai hokokusho. (Tokyo: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nservation)
- Plutschow, H. 1999.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on the Japanese tea ceremony. Anthropoetics-The Electronic Journal of Generative Anthropology, 5 (1). Retrieved August 15, 2006, from <http://www.anthropoetics.ucla.edu/archive/anth0501.pdf>
- Plutschow, H. 2003. Rediscovering Rikyu: And the beginnings of the Japanese tea ceremony (Folkestone, Kent, England: Global Oriental)
- Robertson, J. 1994. Native and Newcomer: Making and Remaking a Japanese Cit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UNESCO. 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Paris: UNESCO)
-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is: UNESCO)
- Watanabe, M. 1999. Background on cultural policies and programs in Japan. pp. 61-112 in Zemans, J. & Kleingartner, A (Eds.) Comparing cultural policy: A study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London, Walnut Creek & New Delhi: Altamira Press)
- Yanagisako, S. 1985. Transforming the past: tradition and kinship among Japanese America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Zemans, J. & Kleingartner, A. (Eds.) 1999. Comparing cultural policy: A study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London, Walnut Creek & New Delhi: Altamira Press)